

중국 관광업계 동향[24. 8월 2차]

□ 중국 정부 정책

- 산시(陝西)성 문화여유청, 인바운드 관광 인센티브 정책 발표
 - 산시(陝西)성 문화여유청, <2024년 산시성 입국 관광 홍보 마케팅 인센티브 계획> 발표. 인바운드 관광 초청, 해외 시장 발굴, 목적지 관광 홍보 3가지 항목을 인원 규모, 소득 규모, 홍보 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

□ 통계 분석 및 예측

- 한국 및 주요 경쟁국 상반기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현황 및 '19년 대비 회복률

구분	'24.1월	'24.2월	'24.3월	'24.4월	'24.5월	'24.6월	총계
한국	280,035 (71.3%)	343,719 (75.8%)	391,347 (80.3%)	411,331 (83.4%)	395,222 (79.0%)	397,325 (83.6%)	2,218,979 (79.2%)
일본	416,088 (55.2%)	459,400 (63.5%)	452,400 (65.4%)	533,600 (73.5%)	545,400 (72.1%)	660,900 (75.0%)	3,067,788 (67.7%)
태국	508,563 (47.5%)	674,558 (63.4%)	573,216 (58.2%)	595,572 (66.2%)	559,461 (70.4%)	528,112 (63.1%)	3,439,482 (60.9%)
싱가포르	211,178 (65.9%)	326,900 (96.3%)	247,658 (82.5%)	220,435 (73.0%)	222,335 (78.4%)	217,655 (81.8%)	1,446,161 (79.8%)
말레이시아	220,595 (80.6%)	310,123 (105.1%)	228,054 (83.6%)	196,924 (78.1%)	229,354 (94.4%)	264,661 (119.2%)	1,449,711 (93.0%)

* 태국('24.3월), 싱가포르('24.2월) 중국과 상호 단기(15일) 비자면제 협정 발효

* 말레이시아, '23.12월부터 중국 대상 단기(30일) 비자면제 정책 실시

- 중국 VFS Global 상반기 비자 신청량 '19년 대비 70% 회복
 - 중국에서 30여 개국(미국·독일·이탈리아 등)의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VFS Global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VFS 비자센터에 접수된 비자 신청량이 '19년 동기 대비 70% 수준으로 회복함

○ 중국, 일본·베트남 인바운드 관광 규모 1위 달성

-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7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77만 6,500명으로 집계, '22.6월부터 2년 연속 선두였던 한국을 제치고 일본 인바운드 관광 규모 1위 달성
-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 5월 베트남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35만 7,000명으로 집계, 4년 연속 선두였던 한국을 제치고 베트남 인바운드 관광 규모 1위 달성

□ 경쟁국 동향

○ (일본) 일본 지진 주의 발표로 방일 중국 관광객 영향

- 8.12.(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지진 주의보 발표*로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 상품 예약을 취소함. 중국국제항공, 동방항공 등 일부 중국 항공사는 일본 지진 관련 환불 및 일정 변경 정책을 발표함

* 일본 기상청, 일본 규슈 남동부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 발생(8.8.(목)) 이후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주의보)' 발표(8.9.(금))

- 언론에서 단체관광은 지진 관련 영향이 적다고 했으나 여행사 등에 문의한 결과 일본 단체관광 상품 구매 문의는 감소한 반면 취소 문의는 급증함. 다소 높은 환불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단체 관광 상품을 취소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
- 한편, 주일본 중국대사관과 오사카 총영사관은 위챗 공식계정으로 주일본 중국인 및 방일 중국인 관광객 대상 안전 주의 당부

○ (태국) 태국 국가회의전시국, 상하이·광저우서 MICE 로드쇼 개최

- 태국 국가회의전시국(TCEB), 중국 MICE 관광객 유치 및 잠재 비즈니스 기회 발굴 등을 위해 중국 상하이·광저우에서 8.20.(화)~22.(목) 2024년 태국 MICE 로드쇼 개최

□ 기타 동향

○ 중국-북한-러시아 국경 관광 열차 운행

- 8.11.(일)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중국-북한-러시아 국경을 따라 운행하는 동북아장여(东北亚长旅号)호가 최근 운행을 시작함. 해당 열차는 단계적으로 운행 노선을 확장하여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연결할 예정

○ 고려투어(여행사) 북한관광 재개 전망 발표, 북한 공식 발표 없음

- 고려투어(Koryo Tours), 8.14.(수)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관광이 재개될 것이며 삼지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북한 모든 지역으로 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함. 하지만 북한 측 공식 발표가 없어 중국 동북지역 현지 여행사는 북한관광 재개에 보수적인 분위기

○ 스리랑카, 중국 등 35개국 대상 단기 비자면제

- 스리랑카, 10.1.(화)~3.31.(월) 한국·중국·일본 등 35개국 대상 단기 비자면제 정책 시행. 스리랑카는 '23년부터 중국 등 일부 국가 대상 단기 비자면제 정책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바 있음